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어린이/어버이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6장 다같이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후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2:1-11 인도자

설 교 “물에서 포도주로”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물에서 포도주로

요한복음 2:1-11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은 그 자체를 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 그리스도, 천국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 거둢남 등.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결혼식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연회장은 신랑의 아버지, 신랑은 잔치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손님 같은 주인이셨다. 예수님은 결혼을 축복하신다. 결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이라고 해도 주님은 임재하셔야 한다. 마리아는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치 당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혼인 잔치 또는 즐거운 잔치로 묘사한다. 잔치에 가면 음식이 있고, 음악과 춤이 있고, 웃음과 즐거움이 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즐겁고 풍요로운 잔치와 같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다 한계가 있다. 잔치를 진행하다가 음식의 알맹이가 빠진다. 포도주는 기쁨과 연회의 상징인데 혼인 잔치에 위기가 발생한다. 그때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고비이며 시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결 조건이며 하나님의 '때'도 필수적이다.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고 당부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는 뜻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에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의 정결예식에 쓰는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여 그대로 하니, 연회장이 맛보고 감탄한다.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말이다. ▶ ① 가나 혼인 잔치는 순종의 표적이다. 인류의 원죄는 불순종이었다. 불순종이 모든 죄를 낳는 씨앗이 되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순종하는 사람만이 표적을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물을 바꾸어 향긋한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진심 어린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② 가나 혼인 잔치는 변화의 표적이다. 유대 정결예식에 쓰이는 옛 언약의 물을 새 언약의 포도주로 바꾸신다. 구약이 신약이 된다. 외적 변화에서 내적 변화로 나아간다.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의 질적 변화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예수님은 텅 빈 우리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바꾸신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다.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일어난다. ③ 가나 혼인 잔치는 점점 더 좋아지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탁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하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점점 더 나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이 천국이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해피엔딩이다. 신랑신부의 기쁨, 하객들의 기쁨, 마리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11절)고 결론을 맺고 있다. 표적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육체적으로는 회복을 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된다.